

2020 인문과학대학 우수 논문 및 창작 공모전
-창작(한글) 부문-

목차
가을 손님, 추풍
편지의 재구성
나는 인어
오페라가 끝난 후
순수의 시대
물고기 한 마리
안전 항해
...오면 전화주세요
종이접기 - 가위질

전공: 영어문학부
학번: 18
제출일: 2020년 11월 20일

가을 손님, 추풍

코끝에 느껴져
목덜미를 살짝 깨물고
슬그머니 내려와
가슴팍을 두드려

입술에 마주치고
눈가에 매달리고

좁게 열린 틈 사이로
낮선 기운이 들면
달아 잠굴만도 한데

어느새
허리까지
내려와

움츠릴 듯 말 듯
몸을 맡기고

느껴지는

흔들리는 것이 머리카락인지
마음까지 같이 일렁이는데

머무르라고 재촉
괜스레 두 손을 풀고
걸음을 빨리 더 빨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라져버려

남는 건 결국
흘러내리는
땀뿐이라고.

편지의 재구성

요즘 누가 편지를 쓰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야

손편지는 빛바랜 옛말이 된지 오래

부치지 못할 편지를 쓰는 건
차마 꺼내지 못한 마음을
서랍 한 모서리에 가둬두기 위함

누구나 마음 속 열지 못하는 문이 있잖아요
주소도 몰라 우표도 없어
글만 달랑 적어놓은 종이 몇 장
서랍이 꽉 차면 태워버릴거야
형체 없는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라고
그러면 떠다니다가 스쳐 지나가겠지

어찌구저찌구
뭐라는 거야

서랍 한 칸에는
묶여버린 외로움
먼지 쌓인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나는 인어

찢어지는 소리와 눈을 가로막는 비명에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세상이 뒤집혔다
내가 서있는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짚은 것이 땅인지 모래인지 늪인지
부단히 노력해도 넘어지기 마련이다

짚을 곳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는 법을 잊어버린 인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꼬리가 끊어져라 움직여도 계속 떨어지는데
차라리 부딪혀서 산산조각 끝이 보였으면 한다
그제야 껍데기뿐인 나를 누군가 둥둥 건져 올리겠지

인생이 그렇게 쉬어보이더냐?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뇌에 스크래치를 내듯
까득까득 굼으며 속을 불편하고 거북하게 만들어
어제 먹은 저녁이 미끌미끌 물고기처럼 식도를 거슬러 올라온다

오페라가 끝난 후

어깨와 발이 모두 잠겨버리고
질척거려서 찹찹하기 짝이 없다

눈앞이 캄캄하지 어둠이 드리운 듯
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건지
세상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인지

겉가에 울리는 불협화음

깨
버
리
고
싶
다

더러운 파편 조각들 쓸모없는 아우성

낯선 거리 아는 사람 없음
터져버린 붓물처럼 쏟아져 나와
걸음을 멈출 수 없어 느리게만 만들었다

부끄러움은 없다
창피한 줄 알라고.

순수의 시대¹⁾

뉴욕 맨해튼 한 거리에는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을 버텨온 거대한 저택이 하나 있다
이제는 빛이 바래 세월의 흔적만을 안고 있지만
한때는 빛나는 무도회장으로 사람들이 붐볐었다

젊음의 치기에 빠져 열망하던 매혹적인 여인의 초상도
매순간 숨을 몰아매던 지긋지긋한 뉴욕 사회의 가식도
이제는 모두 빛바랜 기억 속 일부 일뿐

견고해보였던 벽들이 무너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며
지나온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도피를 갈망한 지난날의 무모함
이제는 삶의 꽃이란 닿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환상임을 깨달은 채
이지러진 인생 불완전한 행복 속에서
변화하는 세월의 흐름을 멀리 바라볼 뿐이다

여인은 파리에 있지만 나는 뉴욕에 있고
작은 불빛이 새는 그녀의 아파트 앞에 찾아가서도
홀로 세운 상상의 기둥만이 현실로 남아있도록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저 벤치에 앉아있었다

1) Edith Wharton의 순수의 시대

물고기 한 마리

목덜미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에도
내놓은 벌거벗은 두 손에 온기를 불어주는 건
살짝 터진 듯한 못난 물고기 한 마리
삭막하고 얼어붙은 거리에 온기를 내뿜듯
내 손안에서 빠끔빠끔 헤엄친다

늦가을부터 겨울철
붉은 보드해에서 잡히는
물고기 한 마리

안전 항해

시월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아서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마음을 개운하게 한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나를 비운다는 건
부표하는 생각의 찌꺼기를 하나로 뭉쳐 버린다는 것

이따금씩 머리 위로 드리워지는 붉은 그림자
선선한 냉기가 스며들면 잔상을 남기고
수많은 소리들을 무심히 담아 흘러가는 바람과
깊은 쪽빛 돌멩이를 속에 던져도 잔파동 없는 마음

하늘을 바라볼 때 눈이 시려 눈물이 나듯
내 마음을 비웠을 때 누군가를 울릴 수 있기를

...오면 전화주세요

서대문역 5번 출구로 나와 앞을 보고 직진
눈앞에 국수집이 보이면 오른쪽으로 돌아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 오래된 거리 하나
남은 떡볶이집 상호명 로템나무

사막에서 자라 봄에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가을에 만나버렸지 뭐야 너무 이른 게 잘못이었을까
달콤함 뒤에 찾아온 씹살함에 눈물이 찢긋찢긋

덕수궁 돌담길 그래 모든 건 빌어먹을 돌담길 때문이다
돌담길 말고 딱 정동길 까지만 걸음을 멈춰보자
단풍잎이 떨어진 거리 나는 지금 정동길이야

종이접기

- 가위질

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누구나 쉽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정

누구나 쉽게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행복한 순간만을 팔아요
삶을 오리고 잘라서 희로애락 중 희락만 남기죠

멋들어진 웃음

싸고 쉽고 빨라요 인생이란 게 그렇죠
삶이란 못생기고 버리기 쉬운 것 아니겠어요

박수 유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서
손톱만큼만 남겨 놓으면 일그러진 부분은 찾아볼 수 없죠
편집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특권이랍니다

키스와 인사